

옛 기록과 지도를 통해 일제 지명을 찾아내다 고양시, 산·강·마을·나루터 등 조사 실시

일제강점기 고양군의 면적은 지금과 비교하여 2배 정도 넓었다. 서울 강남 일부와 서울 강북의 대부분이 고양군에 속해 있었다. 일제강점기 사용되었던 많은 지명(땅이름)도 뜻이 바뀌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많은 지명 중에서 한자명, 우리말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지명들을 고문헌과 기록을 통해 알아본다.

글. 사진 정동일(고양소식 편집위원)



옛 고양군 지도



1911년 발간된 조선 지리지(地誌資料) 기록

일제는 1914년 우리나라의 지명을 대대적으로 바꾸었다. 땅 이름을 바꾼다고 하여 일명 '창지개명'이라 부를 정도로 많은 지명이 사라지거나 한자가 바뀌었고 언문으로 전해지던 지명들이 전혀 다른 의미의 지명으로 바뀌었다. 1914년 창지개명이 있기 전 1911년 조선의 지명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 일제의 지명 개정에 앞서 이루어진 이 조사의 내용을 통해 우리의 본래 지명에 대해 살펴보고 하겠다.

현재까지 400여 건 세부 조사 완료

경기도 고양군의 경우, 조선 지리지료를 산, 마을, 면(面), 연못, 강과 하천 등 총 400여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거나 완료한 상태다. 그 결과 지금은 사라진 지명을 비롯하여 원형과 다른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이전의 한강은 행주강(杏洲江), 벽제 개명산은 계명산(鷄鳴山) 고봉산은 '퇴미산'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계곡과 평야의 이름이 가장 많이 바뀌고 사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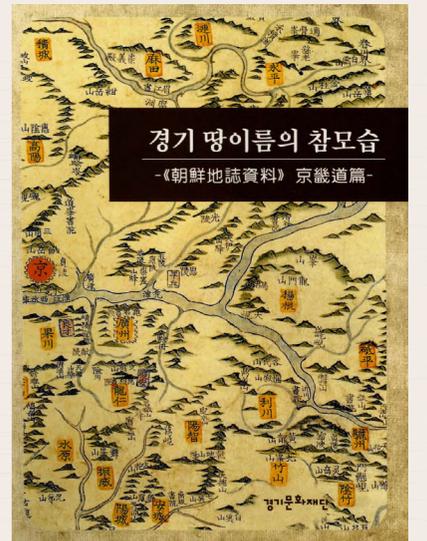
조사결과, 1914년 이전의 조선지명 중 가장 많은 지명의 변경은 곡(谷)과 평야(들판) 부분이었다. 본래 해포(醢浦)로 기록한 한글식 언문 기록은 '젓개밭'인데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다. 젓개들은 강매동과 현천동, 도내동 일부가 포함된 큰 평야였다. 이 평야를 지나는 경의선 철도의 교량 명칭을 '젓개다리'라 부르고 있는데 예전에 젓갈을 실은 배들이 오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외의 여러 골짜기 이름과 평야의 이름은 100여 년이 지나면서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거나 이미 사라진 지명이 되었다.

샘पुर리, 깊은내 막은개 등 우리말 지명 널리 사용되길

일제가 지명을 일본식 한자로 바꾼 땅이름에는 참 예쁜 순우리말 지명들이 많다. 맑고 푸른샘이 있다고 하여 '샘पुर리', 깊은 개울과 연못이 있어 '깊은내', 홍수를 막기 위해 독을 막은 '막은개'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도 공원이나 학교, 교량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말 이름이다. 도시재생사업, 신도시개발,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등 여러 개발을 앞두고 우리말 지명들이 널리 사용되었으면 한다.

일제 잔재, 지명조사를 통해 기록으로 남겨지길

지금도 고양시 곳곳에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지명이 사용되고 있다.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거나 그 의미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통해 후대에 알리고, 다시는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 땅이름의 참모습(책자)